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4

최고의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과 한 영 됨

성경: 고전 6:17, 19-20, 7:17-25, 40

I. 신약의 본질은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이다 — 고전 6:17, 롬 8:4.

- A.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합하는’이라는 말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 요 3:15-16, 15:4-5.
- B. ‘한 영’이라는 표현은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 고전 6:17.
 - 1.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그 영은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 둘 다이다 — 롬 8:4, 고후 3:17, 고전 15:45 하, 6:17.
 - 2. 우리가 주님과 갖는 교통,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들은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다.
- C.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두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결이다(고전 2:11-14).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 안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
- D.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초점과 연관된다 — 엠 3:9, 5, 1:17, 2:22, 4:23, 5:18, 6:18.
- E. 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고전 1:2, 24, 30, 2:8, 10, 3:11, 5:7-8, 10:3-4, 11:3, 12:12, 15:20, 47, 45.
 - 1.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다.
 - 3.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누린다 — 고전 1:9.
 - 4. 주님과 한 영인 모든 사람을 위한 공급은 무궁무진하다.
- F. 믿음의 영(고후 4:13)은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이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대해 체험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을 사용해야 한다.
- G.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롬 8:16),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 된다(고전 6:19-20).
 - 1.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연결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고전 6:15.
 - 2.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딤후 4:22)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엠 3:17) 때문에 정결하게 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온 존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 3. 우리가 긴급하게 보아야 할 이상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 고전 6:15, 17, 19.
- H.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이고,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 요일 5:11, 벰후 1:4.
 - 1.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은 우리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활, 곧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생활을 살 수 있게 한다 — 갈 2:20, 빌 1:19-21 상.

2.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II. 고린도전서 7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하나인 사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안배하신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영을 전달한다.

A.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고,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되어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기를 원했다 — 고전 7:17-24.

B. 바울은 주님과 극도로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대답에서 자연스럽게 부지중에 절대적인 영을 표현했다.

1. 바울은 탁월한 영, 곧 복종적이고 불평 없이 만족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

a.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매우 복종적이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했다.

b. 그에게 모든 상황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 것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2. 바울은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을 도와 그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었다 — 고전 7:24.

III.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신약의 육체 되심의 원칙에 대한 예가 있다 — 고전 7:10, 12, 25, 40.

A. 육체 되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셔서 사람을 그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 요 15:4-5.

1.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은 주님과 하나되며 그분과 함께 말한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말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말씀이다.

2.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원칙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였다(사 10:24, 렘 2:2). 신약의 육체 되심의 원칙은 “(말하는 이인)내가 지시합니다.”(고전 7:10)인데 그 이유는 말하는 이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B. 바울은 육체 되심의 원칙 안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썼다.

1. 10 절에 있는 원칙은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 있는 육체 되심의 원칙, 곧 두 인격이 한 인격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

2.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다.

3.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주님과 하나였다 — 고전 7:40.

4. 25 절과 40 절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성, 곧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그분으로 침투되어 심지어 자신의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의 영성을 본다.

5. 우리가 그 영으로 적셔진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것은 또한 주님께 속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고전 6:17.